

GRACE 선교소식

2026년 10월 GMI-GKC 선교사 현황: 59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일천번제 기도는 큰 은혜입니다.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애틀랜타 새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에서 열린 KIMNET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KIMNET은 세계한인선교동역네트워크로, 34개 선교단체와 선교적 교회의 담임목회자 및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국제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전도와 선교 동원을 위한 지역교회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저는 총회를 인도하고 화요일 저녁 선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 은혜한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GMI 선교 모토처럼, 교회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GMI 선교사훈련원 16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졸업생들이 지난 7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필리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나라로 모두 파송받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은 청지기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청지기선교회는 GMI 세계선교를 후원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청지기 회원으로 동참하여 세계선교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달러 한 구좌부터 시작하여 200달러의 이사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복지 사역과 선교지 신학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선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교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세상의 빛 동광교회 50주년 기념 부흥집회: 10/22-10/25
- 은혜동산 #18: 10/26-10/29
- 전주 바울교회 부흥성회: 11/2-11/4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 가까운 이웃과 지인들에게도 선교에 동참할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헌신이 모여 선교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청지기 선교에 가입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세계선교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M국

한OO / 김OO 선교사

호산나 교회는 매 주일 10시에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근래에 건축된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당이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로 허가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도 길어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이에 선교사들이 세운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집 형태라서 한국처럼 지붕에 십자가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여러 곳

에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동네 이장들이 있고 아예 예배를 금지한 곳도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호산나는 좋은 이장을 만나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를 시무하는 B 전도사는 요즘 이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B 전도사는 손이 느리고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전도를 위해 이발을 배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전에 한국에서 미용사 세 분이 단기 선교를 와서 2주 정도 현지인들에게 이발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 제자인 S는 8월 25일 한국으로 출국을 하여 현재 대학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이어서 다소 어렵다



고 합니다. S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H는 해외 불우 환자로 선정되어 11월 13일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돕고 있는 NGO의 주선으로 아산병원과 연결되었는데 수술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빠르지 않은 M국의 행정 시스템과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하여 비자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비자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J국

고OO / 이OO 선교사

시리아 난민 학교(드림스쿨)

2026년 졸업식이 지난 8월23일 있었습니다. 14명의 아이들이 소정의 과정을 잘 마치고 드림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이이들을 적게는 1년에서 4년동안 사랑으로 섬기며 쌓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물질로 공급해 주심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졸업생들에게는 불확실한 난민의 삶이 연속이지만, 이학교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꿈꾸고 무엇보다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떠난 빈 교실을 청소하고 새로 단장하며 이번주에 있을 신입생 맞이 준비했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

에 곰팡이를 제거하고 깨끗이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시리아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난민들 그리고 태어나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을 말로만 들으며 이국 땅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드림스쿨이 작은 희망이 되고 무엇보다 이방인을 통해 비춰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 이들의 영혼에 울림이 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영혼이 주님께 나아올 것을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나라 확장 생명교회

회교권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시간이 필요한지, 지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심하고 매일 초심으로 돌아가 만남과 이별을 나눈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관계로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매일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생명교회는 한가정의 회심을 통해 기적처럼 세워진 가정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아직도 어린 생명교회 A, S, A, S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기를 보내는 세 아이들이 세상문화에 관심이 높을 때입니다.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크라이나

김교역 / 김주순 선교사

그동안 소식을 들려야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삭막해만 가는 마음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유럽에 흩어져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유럽선교의 첫 컨퍼런스의 걸음을 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이웃 나라에 한인 선교사 8가정들 또한 초대해서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컨퍼런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다시 재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경보사이렌이나 폭격소리도 모든 아픔들도 그냥 자신들도 느끼지 못하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나마 아주 작게 이어지는 가는 끈이었지만, 그것 또한 그냥 약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큰 집들이 모여 있는 곳들, 서너곳이 폭격에 상태도 없이 시꺼먼 재들이 쌓여져 있는 모습들은

저희를 슬프게합니다. 그 폭격으로 주위에 있는 집들 또한 많은 창문들이 깨지고, 나무 판넬로 가려 놓은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폴란드 컨퍼런스를 마치고 약 열흘 만에 돌아 오는게, 도로가에 시커먼 철제만 남은 건물들이..., 그리고 시내와 나뉘어 있는 강다리 두 개가 폭격으로 일을 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 1부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들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피난 길로 유럽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그래도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있는 곳에서 무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곳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물 방울이 떨어져서 큰 물을 만들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의 복

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비행기로, 기차로, 장거리 버스로, 또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모인 9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았다는 간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나 자신도 모르게 침체된 마음을 아침 저녁 기도하고 있으니, 예배드리니까, 하면서 나 혼자만의 위로로 겨우 지탱해 오던 것들이 집회를 통해서 회개와 위로하심과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부르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트리려고 여러 문제들을 만들고 흔들었지만 그래도 뒤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I국

장OO / 최OO 선교사

여호와와 절기/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여호와와 절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음에도 유대인의 마음과 눈이 가려져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무시하며 직간접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유대 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차 I국 크네셋/국회 선거

10월 27일은 26차 I국 크네셋/국회 선거일입니다. 새로운 I국 총리와 새 정부가 구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

지의 전쟁기간을 통과한 I국이 이제는 I국의 흔들려진 내부 결속, 주변 나라들과의 지속적인 전쟁,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반유대주의라는 중요한 과제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세멘싸쎄 메시아닉 교회

섬기고 있는 세멘싸쎄 메시아닉 교회는 7-8월 여름방학 기간과 9월 절기 기간을 보내며, 조금은 분주하고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9월 18일 세멘싸쎄에서 제(아내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가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보통 저는 카혼(리듬 타악기)을 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몇달에 1번 히브리어 찬양인도를 하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

여름 기간을 지나며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사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D와 S, 대학 학사를 마치고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Y, 알리아를 준비하다 거절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A, 대학 방학 기간 동안 다른 도시 엄마 집에 머물고 있는 M, 군대를 곧 마치면 다른 도시로 가게되는 S, 결혼하게 된 P와 S, 어린 나이에 결혼(19살)해서 딸을 임신한 S 등.... 주님께서 저희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를 새롭게 정비하시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청년 한영혼 한영혼이 세워지고 새로운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길 기도합니다.

태국

김경수 / 서경란 선교사

라농까퍼교회

지난 8월 12일, 마침내 교단과 노회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전도처로서의 위치에서 자립교회로서의 감사예배를 은혜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단세력이 들어와 교회를 반토막 나게 하며 어렵게 하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자들과 굳건하게 지켜내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 다시 세례교인 30명 이상 되어 어린이포함 50여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립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 작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아잔 뽀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동역하며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라농 그리고 태국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길 기도합니다.

라농 임마누엘 카렌교회

임마누엘 카렌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역할을 해온 룬더와의 큰아들이 큰자가 갑작스럽게 하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 가족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하늘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기



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가운데 아픔을 이겨내고 믿음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임대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토지를 구입하도록 재정이 공급되어 하나님나라 안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교회를 건축케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해 나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프라콤

현재 태국의 경제상황은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가운데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마이빠라이 즉 관찮아 문제없어라는 뜻을 가지고 매사에 초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문화 속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집집

마다 빌딩마다 산프라콤이라는 작은 정령의 집을 놓고 그곳에 기도를 하며 매일아침 이곳에 공양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서고 있으며 삶의 주거공간의 평안과 안녕을 담보하는 영적인 자신들의 보호막이자 깊은 문화적 뿌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태국 백성들이 수백 년동안 사로잡고 있는 영적 두려움과 정령 사상의 묶임이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며, 화를 입을까 두려워 신당에 제물을 바치는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왕이 있는 왕실의 태국

작년 왕비서거가 얼마되지않아 그의 딸인 공주가 서거하여 태국내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장례에 대한 슬픔과 애의를 계속해서 갖추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태국내에서 왕족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왕족과 불교와 정치권은 끈끈하게 결탁되어 국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단의 견고한 진과 같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나라는 연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또한 한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태국 영혼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보좌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해 온 한국어센터의 시작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대학과의 MOU 협약식도 여러 행정 절차로 인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한 시간에 맞추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지나며 사역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내려놓고 기다리려 합니다. 지연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한국어센터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섬기며 복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화밭으로 떠난 M민족의 아이들

M민족이 살아가는 지역에는 목화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밭으로 나가 노동하고 있습니



다. 현장의 동역자들과 계속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온 삶을 자신도 그대로 살아가야 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숙사가 안전하게 잘 세워지고, 이곳에서 한 세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의 S지역 방문을 준비합니다

오는 10월에는 두 차례 북부 S지역을 방문할 예

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방문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북부 지역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S지역과 그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적은 공동체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현장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동과 만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북부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새로운 연결들이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불에 탄 교회, 그러나 꺼지지 않은 믿음

J도시를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구세군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신성모독 의혹으로 인해 이 지역의 교회와 기독교인 가정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가운데 구세군 교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건물보다 더 오래 회복되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 다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굳게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I국

함OO / 김OO 선교사

LA 은혜교회 S선교팀들과 S섬 사역(9/7-9/12)을 하였습니다. LA 은혜교회팀들과 함께 S섬에서 내년 2027년 행사들을 위한 준비작업, 현지사역자 기도회, 교회건축과 우물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마을방문 예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2027년 6월말 S섬 첫번째 Tres Dias 프로그램을 위해 Y 신학교측과 시설 및 일정에 대해 자세한 회의를 하며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LA 은혜교회 권사님 한분께서 암투병 가운데 계시면서도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자 후원해 주신 M 마을교회에도 방문하여 건축 중인 교회에서 마을분들과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S섬에 진행 중인 각 마을교회 건축들과 우물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1달만에 정말 놀라운 속도로 건축 중인 L 마을교회를 비롯해서 6개 마을교회가 건축 중이고, 물이 없어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5개 우물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공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어 각 마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생수가 쏟아져 마을분들에게 공급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아직 교회건축이 절실히 필요해 기도하고 있는 마을들과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마을들에도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 바랍니다.



혜송원 후원 봉제학교 제1기 20명 수료식을 은혜 가운데 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교육받은 봉제학교 제1기 20명이 9월 18일 수료식과 9월 19일 패션발표회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였습니다. 패션쇼를 보러오신 가족분들의 놀람과 축하와 격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었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20명 교육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PGM 선교대회 (10/10-10/18, 튀르키예)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PGM 선교대회가 튀르키에서 8일간 있으며, 특별히 금번에는 S섬 사역자 5분도 함께 참석합니다. 현지사역자 5분이 난생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고 국제선 항공편을 2번이나 Transit 하면서 튀르키에 PGM 선교대회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PGM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분들(약 200여명)과 S섬 현지사역자 5분 모두 금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더욱 크신 주님의 비전을 받으며 영적충만이 되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파나마

김재한 / 그레이스 김 선교사

4월 마지막주에 한국에서 방문한 왕의 재정팀이 파나마시티에 있는 선교사와 동역하는 교회에서 한주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3분의 한국에서 온 강사님들과 2분의 코스타리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강의와 개인 간증을 통해 이곳 현지 성도들에게 도전과 말씀을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마지막날은 교회 리더들과 가난한 성도들 가정과 이웃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강의가 더욱 이곳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 강의를 듣는 일반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그들의 간증을 통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 2번째 주일에는 아틀란타지역 여러 교회 연합으로 안경과 말씀 사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아틀란타 연합 선교팀은 오랜 안경선교경험과 원시 근시를 모두 체크하여 각자에 맞는 안경을 현장에서 맞추어 주는 기술이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다니는 많은 어린이들이 근시인 것을 모르고 살다 안경을 끼고 새롭게 보이는 세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려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경을 맞추기 위해 접수를 하기 전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경팀을 통해 선교사에게 놀라운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안경팀에 통역을 맡은 사모님이 대화중에 사모님이 20대 초반에 베네수엘라 아마존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젊은 부부 선교사가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가끔씩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사모님과 저희에게 기쁨과 감명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팀에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은 매주 토요일마

다 선교모임을 갖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선교 열정이 대단 하시라며 성함을 말씀하시는데 오래전부터 우리 선교지를 여러 번 방문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너무 놀란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장로님과 통화하게 해 주셨습니다. 종으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선교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단기팀이 떠난 후 곧바로 미국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지역에서 열리는 중남미 선교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중남미에 오랜 동안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나 한인선교 단체가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없이 사역을 해왔는데 현지 선교단체와 함께 선교 전략을 짜며 동역하는 사역을 위해 중남미 현지인 선교지도자, 한인 선교사 지도자들이 모여 3박 4일간 회의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현지 선교단체와 한인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하며 중남미 선교지와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협력하기로 MOU를 맺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 몇몇 교회들을 방문하며 선교 보고를 통해 중남미 선교 현황과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파나마 다리엔지역 선교를 소개하며 젊은 사역자들이 참여하기를 호소했습니다. 청년들 교회로 유명한 삼일교회에서는 선교사의 호소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매년 구정을 맞아 삼일교회 청년들이 이곳 파나마 다리엔 선교지를 방문 하는데 함께 동역할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길 기도합니다.

6월 마지막주에는 신학교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시는 정 스테판선교사님이 한주간 강의를 진행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스페니쉬로 강의를 하여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7월 마지막주에는 미국인 다니엘친구가 아들과 함께 다녀갔습니다. 10일간 머물면서 선교부에 속한 교회, 선교관 배관 등 여러 가지를 수리했습니다. 미국에서 메인터런스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친구로서 3년 전부터 이곳을 방문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곳에 와서 함께 선교 사역을 돕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혼자 하느라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 함께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9명이기에 이곳으로 이주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이곳 사역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곳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콜롬비아로 향하는 펜아메리카 연장 도로가 올해 12월에 인부 구간이 완공되면서 더욱 많은 사역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복음을 듣지만 이곳 다리엔 갭 정글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은 평생에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들에게 한번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사명으로 삼고 오늘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8월 2째주에는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이 다녀갔습니다. 단기선교팀이 처음으로 방문한 쿠나족족인 와라마울은 외부로부터 폐쇄된 삶을 살아가는 마을로 외부의 접근을 잘 허락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주민이 3,500명 학생들이 650명이 되는 마을입니다. 마을로 접근하는데는 2개의 강을 건너야 하고 첫번째 강은 평소에는 차로 건널 수 있었는데 단기선교팀이 방문하는 날은 비로 인해 강물이 불어 차가 못 건너고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한 명씩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루 종일 젖은 옷을 입고 사역하다 보니 마지막날은 모두 감기가 걸려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주님께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매달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폴리갑 교부에게 배워야 할 우리의 신앙

<1분단상 157-10월호>

- 김대규 장로

폴리갑(Polycarp, A.D.69~155경)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사도적 교부(Apostolic Fathers)의 대표적 인물로 불린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3명의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소아시아의 서머나(Smyrna,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 교회의 감독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머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핵심적인 지도자로 영지주의 같은 이단과 싸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했다. 그가 재직하였던 서머나는 당시 매우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로,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을 세울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 반역처럼 여겼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교회는 타협이나 세속화하지 않아 많은 핍박과 불이익이 당하면서 끝까지 순교적 신앙을 지켰다.

그러기에 요한 계시록(계2:8-11)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은 두 교회 중 하나였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하여 하나님나라를 사모했고 소망했다.

폴리갑 교부는 기도와 금욕으로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였고,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했다. 그는 사랑 실천에 집중하며, 교리를 삶을 연결했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과 “믿음”과 “끝까지 견딤”을 지키게 하며 교회를 섬겼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영성이었다.

A.D. 155년경, 로마 당국은 폴리갑 감독에게 황제를 “주(Lord)”라고 부르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끝내 화형을 당해 순교했다.

폴리갑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라는 이 말씀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순교는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라, 박해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폴리갑이 지킨 복음과 그들이 믿는 복음, 이 셋이 동일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만큼 폴리갑이 성도들의 본이 되고,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폴리갑과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되는 “이기는 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대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상에 미혹되거나, 이단의 유혹을 지나치거나, 믿음이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난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함을 느끼게 된다.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굶주림과 역경 속에서도 타협치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 우리의 환경은 핍박의 초대교회 때와는 달리 신앙의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얼마든지 믿음생활을 경건케 할 수 있는 풍요 속에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나약해 있는지도 모른다. 초대교회와 같은 억척스러운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동화된 삶이 아닌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미약해 진 것인지? 경건과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보다는 개인의 명예,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 기도가 쌓여지지 않은 사역, 말씀의 터득 없는 열정,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찌 설명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바쁜 호흡을 멈추고 숨 고르며, 믿음의 본질 앞에서 스스로를 재정립할 필요는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서머나 교회와 폴리갑 감독이 보여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이다. 그의 시작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약속은 단순히 고난의 위로가 아니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하리라”(계 2:11)고 약속하셨다. 폴리갑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며, 그의 삶은 “이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로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과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계 22:5)가 되어야 한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태국 김경수 / 서경란 선교사

1. 까퍼교회의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경험케 하소서
2. 라농지역에 기도운동이 일어나며 사람이 계획해서 행하는 것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영적으로 기도해 나가게 하소서
3. 올한해동안 행해지는 모든 사역이 복음전파에 포커스를 두고 꾸준히 이어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4. 신학생 포드가 신학생생활을 주의 인도하심가운데 순직하게 출발하며 좋은 성적으로 신학생생활하게 하소서
5. 임마누엘 교회 부지가 더 확보되고 향후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도록 건축재정이 계속해서 모아져 나갈 수 있도록
6. 농지역의 교회학교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조성해주소서
7. MK 주찬, 주본군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영광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8. 현지교단과 노회의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태국 복음화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게 하소서
9.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게 하소서
10. 행해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11. 선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선교도구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센터 건축되어 선교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파나마 김재한 / 그레이스 김 선교사

1.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2.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들의 영적성장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3. 진행 중인 선교사역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4. 얼마 남지 않은 2026년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5. 이곳 선교사역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6. 신학교 강의를 위한 교수들과 영상 교제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M국 한OO / 김OO 선교사

1. 영육간에 강건함 주소서
2. 동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3. 선교센터를 세워 주소서
4. H가 11월 13일 수술받고 후유증이 없도록
5. 고3 아이들(3명)에게 지혜를 주소서
6.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소서

J국 고OO / 이OO 선교사

1. 무슬림 영혼의 구원의 소망과 인내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전쟁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 되어지기를
3. 난민사역(난민학교, 가정방문, 교회개척)에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생명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5. 가족의 구원과 홀로 계시는 부모님의 삶과 건강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P국 이OO / 장OO 선교사

1. MOU와 한국어센터의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2. M민족의 아이들이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꿈을 꾸며, 기속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3. 10월 두 차례의 북부 S지역 방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북부 미전도 종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4. J도시에서 피해를 입은 구세군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생활과 언어에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5. 10월 장OO 사역자와 팔복이가 정기검진을 위해 한국을 다녀오는 모든 일정과 검사 과정을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6.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안전하고 적합한 차량을 가장 좋은 때와 조건으로 허락해 주세요.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비쉬켄 TD #23 (10/2-10/14)

S/L: 설성훈 목사
렉터: 박병일 장로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네팔 QT 세미나 및 헌당예배 (10/18-10/26)

SL: 신영자 목사
리더: 이미선 권사
문의: 조범준 집사 (714-222-8628)

• 베네수엘라 AFA #12 (10/19-10/27)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안영숙 전도사
문의: 562-665-0607

• 인도 전도폭발 임상훈련 및 개척선교 (10/20-10/24)

SL: 이민 목사
리더: 신사무엘 집사
문의: 음진형 집사 (714-345-8772)

• 아르헨티나 고르도바 AFA #3(10/22-10/25)

S/L: 안영식 목사
렉터: 쏘텔로 목사, 스텔라 김 선교사

• 은혜동산 18기 (10/23-11/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윤만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T/M: 9/8부터(매주 화), 7PM, VC119

• 인도개척선교 모집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T/M: 9/1부터(매주 화), 7PM, 웨딩채플

• 태국 라오스 TD 3기 (11/21-11/28)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S/L: 송중호 목사
렉터: 양한철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